

# 배드민턴 동호회까지...광주, 코로나19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 광주 하루 최다 22명...재확산 후 129명 누적 162명 확진 수도권-대전-광주 집단감염 지속...해외유입 사례도 늘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발생과 해외 유입 양방향으로 지속하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대를 기록했다. 광주와 대전, 수도권에서는 지역 감염에 따른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해외유입 사례도 늘어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수도권·광주 지역 감염 여파 여전...해외유입도 늘어=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 34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들어 40~60명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을 거듭하다가 전날 35명을 기록하며 보름 만에 3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4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해외유입이 23명으로, 지역발생 21명보다 2명 많다.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23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1명은 입국 후 경기(9명), 경남-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 세계 코로나19 자유형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7일째 두 자릿 수를 이어갔다.

해외유입과 별개로 수도권과 광주 방문 판매업체의 집단감염 여파와 함께 곳곳의 산발적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언제든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는 21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 8명, 서울 7명 등 수도권이 15명이다. 또 광주에서 6명, 대전에서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4명, 광주가 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광주에서는 앞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감염 시설인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와 관련해 2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다. 또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경기 의정부 집단발병,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과 관련해 해서도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고 경기 용인에서는 2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집단 감염 여파 여전 속 확산세 주목=광주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남 대학교 스포츠 센터를 이용한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5명과 일곡중앙교회 전수조사자 중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누적 확진자는 162명을 기록했다. 지난 달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16일 동안 총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54명, 여성은 75명이다.

이 기간 자치구별 확진자는 일곡중앙교회와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여파로 북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산 23명, 동구 18명, 서구 9명, 남구 6명, 해외유입 3명 등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역 감염 절반을 넘기도 했다. 지난 1일 확진자 발생 정점을 찍은 뒤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4일 16명, 8일 18명 등으로 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2만208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29명이 양성, 2만3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58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사찰과 요양원, 고시학원, 병원 등 방문판매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나온 시설·모임도 12곳으로 늘어났다. /최경원 기자 cki@kwangju.co.kr



12일 광주 북구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예배당을 찾은 교인들의 입장 전 발열검사 및 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백선엽 장군 별세

### "친일파" "전쟁영웅" 논란

'6·25 전쟁영웅' 백선엽(사친)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입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 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하지만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례는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되며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으로 확정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연합뉴스



## 광주 경증 환자 6명, 충남 천안으로 이송

### 국가생활 치료센터 우정공무원 교육원서 치료

광주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 6명이 처음으로 충남 천안에 있는 국가 생활 치료센터로 이송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와 40대 여성 각각 1명씩 2명이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천안생활치료센터)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광주 20~50대 확진자 4명이 같은 곳으로 이송됐다.

광주시는 병상 부족, 고위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 생활 치료센터인 우정공무원 교육원으로 일부 경증 환자를 후송하기로 했다.

빛고를 전남대병원의 비교적 젊은 층 입원자 중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대상이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추이를 2~3일 살펴보고 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이송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이날 현재 전남·북을 포함해 161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50개가 남아있다.

우정공무원 교육원은 코로나19 사태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초기 중증 우환 교민들의 격리 시설로도 쓰였던 곳으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광주지역 환자 6명(일)을 제외한 144실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인력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행정인력 2명만 파견했다.

광주시는 생활 치료센터가 더 필요하게 되면 전남도와 협의해 나주에 있는 한전KPS 인재개발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모임 공무원 징계 촉구

### 국민청원 등장...금정면장 등 중징계 요구 1인 시위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모임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전남 영암군농민회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군 금정면장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했으며, 13일부터 영암군청에서 1인 시위를 갖기로 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암 금정면장 코로나 확진 관련'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앞서 전남 30번 확진자인 A씨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난 7월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의 같은 강의실에서 야간반 수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4일 영암 소재 한 골

프장에서 영암군청 소속 6명, 전남도청 3명, 보성군청 1명, 광주시청(콜센터 여성공무직) 1명 등과 함께 라운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삼례를 거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영암군청, 시종면·서호면사무소 정상 운영

### 금정면사무소 2주간 일시폐쇄...군청직원 파견 민원처리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9일부터 폐쇄했던 영암군청, 시종면·서호면사무소가 지난 1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금정면사무소는 2주간 계속 사무실을 닫게 돼 영암군은 5명의 군청 직원을 파견해 주민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12일 "지난 8일과 9일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드나들었던 군 병청, 시종면·서호면사무소 등을 일시폐쇄하고

전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 확진자가 없어 1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직원 이외에 확진자와 접촉 내지 관련이 있는 주민을 포함해 모두 917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 210명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데 이어 9일에는 707명을 검사

한 결과 또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영암군 공직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2명과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업무 복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으로 군정 업무를 정상화해 군정 공백을 줄이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군정 업무에 차질이 없게 됐다"며 "최근 도내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소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 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h3>상속한정승인공고</h3> <p>· 피상속인 : 망 박분례(480123-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감척길60번길 51(우산동) 피상속인 망 박분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3375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13일 · 상속인 : 고헌영(740329-XXXXXX) 광주 북구 감척길60번길 51(우산동) · 신고기간 : 2020. 7.13. ~ 2020. 9.21.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고헌영의 주소</p>	<h3>분묘개장공고(2차)</h3>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고 2차 연묘장 또는 관 리인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관묘 공 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 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북이면 원리리 산 116-12 원리 향장리 북이면 원리리 391-2 2. 분묘기수 : 13기 3. 개장방법 : 개장관행사 4. 개장방법 : 유원분묘 : 연묘장(신고자가 직접 개장 - 무원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제법명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5개월 6. 안락장소 : 인근공립 추모공원 또는 공인된 남골당 7. 안락기간 : 10년 8. 신고 처 : 윤종철(010-6240-5555) 9. 신고서구비서류 : 연묘장 임종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방에서 식물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묘에 대해서는 이공고로 관용함. 2020년 7월 13일 공고인 윤종철, 나용희</p>
<h3>자본감소공고</h3> <p>본 회사는 2020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을 금 7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보통주 2,5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6,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 을 이에 공고함. 2020년 7월 13일 주식회사 우리산림 전라남도 광양시 평양동 인덕1길 26 대표이사 조기우</p>	<h3>자본감소공고</h3> <p>본 회사는 2020년 7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330,000,000원을 금 286,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33,000주 중 보통주 4,4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21,62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 을 이에 공고함. 2020년 7월 13일 주식회사 우수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동문동 동문길 67 대표이사 이은교</p>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